

스마트농업 확대,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

농어촌공, 한국형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부터 육성·확산·수출까지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스마트농업 확대를 미래 농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확보에 힘쓴다고 밝혔다.

공사는 2022년 전북 김제, 경북 상주, 전남 고흥, 경남 밀양 등 4곳에 생산·교육·연구 기능을 모두 갖춘 '스마트팜 혁신밸리' 구축으로 스마트농업을 실현 공간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작년엔 '스마트농업전담조직'을 구성해 스마트농업 전환 가속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올해는 '지역특화 임대형스마트팜 조성사업' 확대를 청년 농업인 육성에 힘을 보탠다. 이 사업은 스마트팜 전문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시설 투자에 대한 부담 없이 스마트팜 창업할 수 있도록 지자체가 스마트팜 온실을



한국농어촌공사는 20일 스마트농업 확대를 위해 스마트팜 온실을 조성했다. 사진은 한국농어촌공사 전경.

임대 해주는 사업으로 공사가 위탁받

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강원 평창, 충북 제천에서 진행하는 사업을 시초로 작년까지 9개 지구에 60.5ha 규모의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신규 지구 추가 조성으로 스마트팜 인프라 구축을 지속 확대하여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

아울러 온실 중심의 기술에서 더 나아가 노지 농업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스마트농업을 접목한 '노지 스마트팜 시범단지조성사업'으로 스마트농업의 재편을 꾀한다. 노지 스마트농업은 토양·기후·병해충 등 생산 환경과 작물의 생육 정보를 실시간 수집·분석하고 농작업을 자동화·로봇화해 정밀농업을 구현하는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농업생산시스템'을 말

한다.

공사는 2022년에 경북 안동 충북 괴산 등 2지구(118ha)를 조성했고, 지난해 신규 발굴한 강원 태백 충북 괴산, 경북 의성 등 3개 지구를 대상으로 362ha규모의 노지 스마트팜을 확대할 예정이다.

한국의 스마트농업 기술의 해외 진출을 위한 '농산업수출활성화사업'에도 중점을 두고 움직인다. 공사는 수출국 인허가 취득, 해외박람회·로드쇼 지원, 맞춤형 정보·컨설팅 운영 등을 통해 농산업 기업의 수출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주영일 수자원관리이사는 "공사는 스마트농업 노하우를 활용해 인프라 구축부터 확산 수출까지 한국형 스마트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욱기 기자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개최

정읍새마을금고, 경영평가 대상 수상

새마을금고중앙회 전북지역본부는 20일 '2024 전북 새마을금고 경영평가 연도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해 분야별 우수 실적을 보인 새마을금고를 선정해 시상하고 경영우수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자리로, 김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을 비롯해 수상 금고 이사장 및 수상 금고 실무책임자와 관내 금고 이사장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수상받은 금고로 △경영평가 대상 정읍새마을금고 △경영우수부문 최우수 남원중앙새마을금고 △경영우수부문 우수 완강새마을금고

고 △경영우수부문 우수 태인새마을금고, △혁신경영부문 최우수 연지새마을금고, △혁신경영부문 우수 무주새마을금고, △혁신경영부문 우수 순창새마을금고, △자산육성부문 최우수 늘푸른새마을금고, △고객만족부문 최우수 전주송천새마을금고, △고객만족부문 우수 조촌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수상 금고를 치하 "2024년은 새마을금고의 건전 성장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100년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새마을금고를 실현하기 위해 임직원 모두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김욱기 기자

인공지능과 영상 활용 '디지털육종' 전문가 한 자리에

농촌진흥청, 21~22일 부안서 영상식물학 학술대회... 디지털육종의 산업적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구축 계기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한국영상식물학회와 함께 농촌진흥기관 대학, 산업체 등 디지털육종 담당자를 대상으로 21~22일 부안군에서 '디지털농업 실현을 위한 영상식물학 학술대회'를 연다.

이번 학술대회는 한국영상식물학회 창립을 기념해 인공지능, 초분광, 3차원(3D) 등 최신 학술정보를 공유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농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과 기술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미래 디지털농업 실현을 위한 영상식물학 최신 연구 동향을 주제로 열

리는 이번 학술대회 첫째 날에는 주제 강연이 있을 예정이다.

주제는 △디지털농업 구현을 위한 컴퓨터 비전 기술 △스캐너(3D) 식생 구조 모니터링을 위한 저비용 연속 관측 라이더(LiDAR) 시스템 개발 및 활용 △드론 알지버(RGB) 영상과 딥러닝 기법을 이용한 발작물 분류와 생육 모니터링 기술개발 연구 사례 등이다.

둘째 날은 △초분광 영상분석 기초 활용법 △알지버(RGB) 영상 이용 종자 및 작물 생육 특성 분석 △식물 영상의 딥러닝 분석을 위한 이미지

어노테이션 및 식물표현체 정보추출 실습 등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양성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학술대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표현체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종자·작물 특성 분석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이 교육에서는 영상분석 원리와 기술 필요성 등 기초정보부터 영상 촬영, 정보(데이터) 처리, 결과 해석 등을 다룬다.

한국영상식물학회 김도순 학회장은 "학회 창립을 계기로 디지털육종 구현과 스마트 농업을 실현하고자 국내

외 혁신적인 영상분석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정보공유의 장을 마련했다"라며, "한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영상 기반 교육, 연구, 산업화 등 전후방에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유전자공학과 김경환 과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 영상 활용 관계자 간의 협력망 구축 등 가능한 디지털육종 생태계를 구축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정부 혁신 과제에 따라 디지털육종 실용화를 위한 협력의 기회를 자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욱기 기자

김종훈 경제부지사, 동물용의약품 기업 방문 현장 소통

김종훈 전북특별자치도 경제부지사가 도내 동물용의약품 제조기업인 한국썸벤(주)(대표 김달중)을 방문해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의 발전을 위한 현장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이 바이오 주력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도내 대표적인 동물용의약품 기업인 한국썸벤(주)을 찾아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다.

전북자치도는 동물용의약품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2020년부터 익산시



에 단계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1단계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효능·안전성 평가센터'가 완공돼 향

후 동물용의약품 공공 전문 시험실시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예정이다. 또한 2단계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시제품 생산시설 구축사업'이 실시될 계획이며, 2025년 완공 예정이다.

지난 3월 15일에는 3단계 사업인 '동물용의약품 임상시험 지원센터' 구축 사업에 대한 타당성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자치도가 동물용의약품 연관산업의 선두주자로 나아가기 위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한 단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한전 전북본부, 설비진단팀 스마트이글아이 운영

한전 전북본부(본부장 연원섭)는 20일 도내 각 지사의 진단전문가 약 30여 명으로 구성된 설비진단팀 'Smart Eagle Eye' (S.E.E)의 발대식을 시행했다. 우선적으로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 투표개소 전력공급설비의 정밀점검을 시작으로 연중 진단활동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전 전북본부는 20일 도내 각 지사의 진단전문가 약 30여명으로 구성된 설비진단팀 'Smart Eagle Eye' (S.E.E)의 발대식을 시행했다.

전북본부는 2010년 전사 최초로 설비진단팀 '윈스톱 패트roller'을 발해 지난 10여년 간 누적인원 2,340명을 동원, 정점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는 6,690건의 불량 공급설비를 적출하고 보수하였다. COVID-19로 인해 설비진단팀 운영을 잠정 중단하였으나, 올 해 스마트이글아이(S.E.E)라는 명칭으로 조직을 리뉴얼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새롭게 시작하는 스마트이글아이(S.E.E)는 △인 1조 순번제로 도내 각 시·군·구별 설비진단(14개 조) △신안지역 등 설비점검 취약개소 드론진단 △설비불량 적출개소 정비 보수 △진단품질 향상을 위한 설비진단 전문가 양성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사전점검 활동을 통해 한전 전북본부는 설비불량에 따른 불시 정

전을 예방하고 특히, 위해설비로부터 시민 안전을 수호하는 '안전지킴이'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발대식에서 연원섭 전북본부장은 "스마트이글아이팀을 중심으로 설비진단 역량을 꾸준히 키워 전력설비와 시민안전 수호자 역할을 충실히 해냄으로써 전북본부가 무재해 및 무사고 사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김욱기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